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6 호 8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반월간)

第 16 호 (230)
1963년 8월 (하)

차 례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과 혁명 전통 교양

당원은 부단한 수양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맑스-레닌주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며, 불요 불굴의 혁명적 투지를 배양하고, 인민적 작풍을 확립함으로써 점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맑스-레닌주의자로 준비되여 간다.

이러한 혁명적 수양은 모든 당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과업이다.

당원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준비되고 완성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락후한 사상 잔재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 실천을 통한 단련이 부족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당원들은 당 조직에 소속되여 당 생활을 진행하며 당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당원들은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준비되여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부단한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과 부족점을 극복함으로써 점차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 가야 한다.

당원이 혁명적 수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특히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원들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는 것과 또한 관련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과 도덕 품성은 그에 상응하게 계속 높아져야 한다.

사회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자체를 부단히 수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조만간에 현실에서 뒤떨어지고 쓸모 없는 당원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의 혁명적 수양은 그가 당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수양은 봉건 사상가들의 수양과는 구별된다.

봉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소위 수양이란 거의 모두가 유심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것이였다.

그들은 수양을 위하여 흔히 인간 생활과 떨어진 심산 절'간을 찾아 가 《경》을 읽었으며 그리하여 《선량한 마음》만 가지면 사회와 자신을 개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물론 허황한 것이다.

우리의 수양은 이와 같이 될 수 없다.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은 대중의 혁명 실천 속에서, 실지 사업과 생활 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혁명적 실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단련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수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 규약 상 의무에 비추어 항상 자기를 검토하며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총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은 혁명 실천 과정에서 자기의 사상과 품성에서의 부족점을 알아 내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고쳐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을 떠난 수양이란 아무러한 의의도 가지지 못 하며 또 필요하지도 않다.

때문에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은 우리 나라의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만 당원들은 바로 우리 혁명 수행에 필요한 혁명적 정신과 기풍으로 무장된 일'군으로 되며 조선 혁명에 실천적 리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현 시기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이 계급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원들의 수양에서 기본 문제로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혁명의 장기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된다.

지구 상에는 아직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사회주의는 일부 나라에서만 승리하였으며 이리하여 국제적 범위에서의 치렬한 계급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지만 전국적 범위에서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지 못 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장구한 기간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오직 이 투쟁을 통해서만이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계급 투쟁에서 적아를 명백히 구분하고 계급적 원쑤를 증오할 줄 알며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견결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우기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직 적대 계급의 본성과 그의 착취상, 교활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 한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점차 교체되며 또한 우리 당 대렬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보충되는 조건 하에서 당원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현 시기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매우 간고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이 분렬된 조건 하에서, 특히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반동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로골적인 파괴 책동, 온갖 비방 중상이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당은 이러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고 한다.

이 과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부닥치는 곤난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하며 부과된 혁명 과업을 어김 없이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강의한 사업 태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곤난이든지 이겨 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눅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

현실은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나라의 혁명을 우리 인민의 힘으로 수행한다는 정신,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은 자기 힘으로 다하겠다는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무한한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전진 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성과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의 힘,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과 얼굴만 쳐다 보는 낡은 전달 사상, 이것은 혁명을 하려는 사람의 립장이 아니며 자력 갱생의 정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오늘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인민적 작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에의 대중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보장함에 있어서, 또한 전체 군중을 당의 주위에 집결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작풍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데로부터 설명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대중의 역할은 그 의의가 더욱더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중요한 과업은 대중이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옳게 조직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군중이 항상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더라도 동요 없이 당을 지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중요하게 우리 당원들의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에 달려 있다.

아무리 우리 당 정책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의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군중은 당의 정당한 방침을 옳게 리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관철에 자각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당원들과 간부들이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할 대신에 명령과 호령으로 대하거나 군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내려 먹이며, 일상 사업과 생활

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지 못 한다면 군중 속에서 당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군중을 아량 있게 포섭할 줄 모르고 무원칙하게 경원하며, 군중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제기한다면 그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할 것이며 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원들의 사업 작풍은 군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속에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수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이 쌓아야 할 혁명적 수양의 기본 내용은 이상과 같다.

❊ ❊

우리 당원들은 이상과 같은 기본 내용에 기초하여 철저히 수양함으로써만 오늘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항상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들의 수양을 위하여서는 당 생활, 학습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형식과 방법을 충분히 리용함으로써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 전통 학습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에는 우리 당원들이 쌓아야 할 수양의 전체 내용이 포괄되여 있기 때문이다.

항일 빨찌산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풍모, 인민적 사업 작풍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의 훌륭한 구감으로 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살며 행동하며 싸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산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실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는 오늘 우리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행동 규범으로, 산 지침으로 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사적은 우리를 무한히 격동시키며 그들을 따라 배우려는 정열로 불타게 한다.

우리 당원들은 항일 투사들의 훌륭한 모범적 사실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부족점을 발견하고 명백한 시정 방도를 찾아 내게 되며 이리하여 자신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부단히 준비시킨다.

또한 혁명 전통 교양이 당원들의 수양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혁명 전통이 사람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다는 데 있다.

혁명 전통으로의 교양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행동, 품성을 어떤 개념만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생동한 사실로서 보여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접수될 수 있고 위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그것

이 보통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한 류례 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 전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감화력은 각별히 크다.

항일 유격대들은 말할 수 없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가장 영웅적이며 락천적으로 용감하게 자기 희생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통은 모든 사람들을 그처럼 무한히 감동시키며 우리들에게 백 배 천 배의 힘과 용기를 준다.

항일 유격대의 간고한 투쟁 사적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눈'시울을 붉히며 흥분하며 격동되는 것은 바로 항일 빨찌산들의 고결한 사상, 품성이 우리의 심장을 틀어 쥐기 때문이다.

실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그의 거대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데 더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혁명 전통이 우리 당의 뿌리이며, 또 이 전통이 바로 오늘 우리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령도 핵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 이것은 우리 당의 뿌리이다. 이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간고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다.

혁명 전통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자기 당의 뿌리, 혁명의 뿌리를 옳게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게 한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결코 먼 과거의 단순한 력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의 령도 핵심과 그 전우들이 조국의 광복과 조선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전개한 간고한 투쟁이다. 바로 이 투쟁 속에서, 이 분들에 의하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항일 투사들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전체 근로자들의 충성은 비할 바 없이 높으며 모두가 그이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에 노력하며 그이를 따라 배우는 것을 가장 숭고한 영예로,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우리 인민의 자신의 것으로, 전체 인민의 고귀한 정신적 량식으로 무조건 접수될 수 있는 것이다.

혁명 전통 교양은 우리 당원들을 혁명 투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못 다한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높은 자각성으로 무장시킨다.

우리의 수 많은 혁명 선렬들은 혁명 투쟁을 계속할 동지들과 후대들을 믿으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면서 최후를 마치였다.

혁명 선렬들의 후대들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그들이 못 다한 혁명 위업을

이어 찬란한 공산주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처럼 살며 싸우겠다는 투쟁 정신으로 자신이 무장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가 선렬들을 잊지 않고 회상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단순하게 기억에서 되살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이들에게서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적 지조를 배우기 때문이다. 선렬들은 혁명에서 우리의 스승이며 거울이다. 우리는 항상 그이들을 따르고 배우며 존경하여야 한다…선렬들에게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그 고결한 지조를 물려 받으며 조선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다지자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은 혁명 선렬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말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자기 맡은 초소를 철벽 같이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혁명 선렬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이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원들은 혁명 전통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투쟁과 생활의 모범을 본받아 자체의 수양을 더욱 높여야 한다.

항일 투사들의 위업의 훌륭한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상기를 몇 번 읽거나 항일 투사들의 투쟁과 생활의 어떤 사건을 아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전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고귀한 사상과 도덕 품성의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혁명 전통 학습을 당 생활, 사상 생활,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혁명 전통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등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은 우리들의 생활과 정신 세계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며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정신적 밑천으로, 원동력으로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에서 작업반의 위치와 역할

림 필 수

최근 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는 작업반 조직을 개편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도,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산하 공장들에서도, 평양 혼방직 모체 공장에서도 자기 공장의 실정에 적응하게 작업반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옳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생산 장성의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고 있다.

오늘 이 문제가 그렇게도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작업반의 역할이 더욱더 제고되기 때문이며 당 정책의 관철 여부가 바로 거기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작업반은 군중 속에서 직접 사업을 조직하는 제일 밑바닥의 사업 단위이다…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결국 작업반에서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에 달려 있다.》(김 일성, 《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경제 생활에서 작업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조성된 새 조건에서 어떻게 작업반을 조직할 것이며 또 운영할 것인가.

1

사회주의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은 생산의 기층 단위이다. 작업반에서 인민 경제 계획들이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생산 활동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작업반의 위치는 결코 단순히 생산 단위라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더우기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작업반은 근로자들을 대중적으로 경제 운영에 인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는 형식들이 보다 발전되고 더욱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들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그 과정에서 생산 협의회가 작업반의 범위에서 조직되여 활발히 운영되게 되였고 내부 채산제가 직장에서 작업반에까지 심화되여 반원들 자신이 수지를 타산하고 생산을 통제하게 되였으며 전체 반원들이 모두

가 륜번으로 작업반장의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게 하는 직일 작업반장제가 창조되고 제품 검사와 기준량 제정 사업 등이 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창조 발전된 이러한 형식들은 대안 사업 체계의 확립에 의하여 더욱 제도화되였고 물질적으로 공고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바로 작업반이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함에 있어서 기본 단위로 되고 있고 벌써 계산. 통계, 로동 행정, 자재 공급, 제품의 검사 등과 같은 공장 관리의 중요한 측면들이 바로 작업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담당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이와 같이 작업반이 근로자들을 대중적으로 기업 관리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기본 단위로 된 것은 생산력이 가일층 발전하고 생산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였으며 관리 조직이 더욱 째워지게 된 데 기인된다.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이 더욱 제고됨으로써 모든 작업반 성원들이 공장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였으며 실제로 작업반에서 공장 관리의 한 측면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관리 조직이 더욱더 째워지고 사업에서의 복잡성이 제거되여 경제 운영 사업 자체가 일층 명백하여졌으며 이에 따라 로동자들이 자기 작업반 사업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가지는 공장 관리에 직접 참가하여 그 일부 측면들을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 더우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그러한 조건은 더욱더 증대되였다. 새로운 관리 기구 자체에 따라 모든 지도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작업반 사업을 도와 주게 되였고 특히 당 위원회가 모든 당 조직들을 잘 움직이게 되고 당 조직은 당원들을, 당원들은 전체 대중을 발동시키게 되여 작업반의 전체 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이끌며 모든 사업에 주인답게 헌신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 단순히 생산 단위에 불과하였던 작업반을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기본 거점으로 되게 하였으며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 놓게 하였다.

작업반은 로동자들이 생산을 하면서 경제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이다.

그것은 우선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경제 운영에 군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관리 지식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작업반은 기업소의 생산 경제 활동에 있어서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성원들이 적고 그의 사업도 비교적 단순하다. 공장이나 직장에서와 같이 경제 운영에서 타산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공장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사업들 이를테면 계획 작성, 생산 조직, 로동 행정, 설비 관리, 자재의 보장(자재의 입출고), 제품 검사, 계산, 통계 등이 다 진행된다. 그러므로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서는 로동자들이 누구나 경제 운영 사업에 쉽게 참가할 수 있고 관리의 한 측면을 직접 담당 수행하면서 공장의 전반적인 기업 관리 사업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군중 속에서의 사상 사업의 거점인 작업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대중적 기업 관리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고 이는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안받침되게 된다. 이로부터 로동자들은 작업반에서 높은 적극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집단적인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기업 관리 운영에 참가하게 될 때 또한 기업 관리를 개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작업반마다에서 더욱 구체화되게 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 시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은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작업반 사업의 강화는 새로운 관리 체계의 위력을 남김 없이 발양시키는 주요한 담보로 된다.

2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로력 조직을 개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매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의 작업반은 로동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협업 형태이다. 작업반 성원들은 일정한 생산 과제를 맡아서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로동을 진행한다.

생산에서 이러한 협업은 가장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적 생산자들의 로동에 비해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즉 《…로동의 기계적 힘이 제고되며 혹은 로동의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확대되며 혹은 생산의 공간적 범위가 생산의 규모에 비하여 축소되며 혹은 결정적 순간에 다량의 로동이 짧은 기간 내에 적용되며 혹은 개별적 사람들의 경쟁심이 고취되여 그들의 혈기가 왕성하게 되며 혹은 다수인의 동일 종류의 작업에 련속성과 다방면성의 각인이 찍히며 혹은 각이한 작업들이 동시적으로 수행되며 혹은 생산 수단이 그 공동적 사용에 의하여 절약》(칼 맑스, 《자본론》 제 1 권 1 분책, 473 페지)되는 것이다.

협업과 분업이 자본가들의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주요한 방법으로 되는 데로부터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도 그것은 자본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의 발전이 다만 잉여 가치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에 있어서만 가능하며 사회적 규모에서 협업과 분업을 효과 있게 조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 있어서만 인간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분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그의 유용성을 전면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결국 생산 행정에서 협업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실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을 자기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조직한다면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대한 로력 예비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평양 혼방직 모체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 과거의 3 교대제를 2 교대제로 고치고 작업반의 규모를 공장의 실정에 적응하게 개편하는 것만으로써도 적지 않은 생산 장성의 예비를 얻어 냈다. 즉 그것으로써 로동자들로 하여금 작업 전이나 혹은 그 후 시간들을 리용하여 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보수를 철저히 진행하여 설비 리용률을 훨씬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작업에 들어 설 수 있게 하여 480 분 로동 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한 것이다.

교대 조직과 함께 작업반 조직을 개편한 이후의 생산 장성 동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로동자 1 인당 생산량	종업원 1 인당 생산량
개편 전인 4월	100	100
개편 후인 6월	125	119

(실재 가동 인원에 의하여 계산한 것임)

보는 바와 같이 개편 직전인 4월에 비하여 그 이후인 6월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무려 20% 정도 제고되였다. 이것은 교대제와 함께 작업반의 옳은 조직이 현 시기 당이 강조하고 있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작업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형태와 규모를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협업을 하여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형태와 그에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의 수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민 경제의 매개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은 기술 발전 수준, 생산 조직의 특성, 생산의 규모, 작업 제도 등 객관적 조건과 작업반장의 지휘 능력이 각이한 만큼 작업반의 형태와 규모도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단일 직종의 로동자들로써 구성된 전문 작업반과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종합 작업반이 있으며 또한 교대별 작업반과 주야간 작업반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종합 작업반은 작업 수행 상한 작업에 로력을 집중하며 각이한 직종의 로동자들 간에 련계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든지 생산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직종별로나 조작별로는 정확히 평가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 그 자체를 로동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자연적 조건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탄광, 광산, 림업, 농업, 건설의 기본 생산 부문들을 들 수 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발파가 진행된 직후에는 천공 작업을 곧 할 수 없다. 우선 버력을 운반해야 하며 착암 로력들까지도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이 없이는 천공 작업도 지연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착암공들이나 운반공들을 각각 따로 작업반을 조직한다면 그들의 협조를 강화할 수 없으며 운반 작업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로력 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곤난하며 운반 작업이 지연되여 착암공의 로력은 더욱더 랑비되게 된다. 또 그들 간에 협조를 강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 결과에 따르는 옳은 분배를 줄 수 없게 된다. 오직 종합 작업반을 조직하여야 생산 공정별 작업량에는 관계 없이 모든 로동자들에게 완전한 작업 부하를 보장해 주어 로동일을 충분히 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작업반 전체의 실적에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모든 로동자들이 서로 방조하면서 작업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주야간 작업반은 생산의 련속성을 떠였거나 교대별 작업 실적의 평가가 곤난한 때에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 상 련계와 직종 간 련계가 극히 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련대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리유》로 관리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종합 작업반을 무리하게 조직하거나 생산이 련속성을 띠지 않는 부문에서 주야간 작업반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작업반이 그러하듯이 종합 작업반도 실정에 부합될 때에만 그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무리하게 종합 작업반을 조직하는 것은 작업반의 규모만 확대시키고 작업반장들이 각이한 직종의 작업에 대하여 원만한 지도를 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견지로 봐서도 작업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주야간 작업반을 무원칙하게 조직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케 된다.

공정이나 직종 간 련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가능한한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며 또 될수록이면 교대별 작업반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전문 작업반은 우선 말 그대로 일정한 작업 수행에 대한 전문화를 보장케 한다. 즉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루고 있는 기계 설비, 기술 공정, 로동 대상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여 이에 정통케 하며, 한 작업으로부터 다른 작업에로 이동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기본 작업 시간의 비중을 증대시키며, 기능공들을 부차적인 작업에서 면제시켜 주며, 설비를 집약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작업반장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작업 조직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하며, 동일한 직종의 로동자들 간에 경쟁을 강화하고 선진 경험을 신속히 보급시킴으로써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더욱 빨리 높일 수 있게 한다.

작업반의 규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산 기술 공정이 복잡한 부문일수록 작업반장들의 지휘 능력에 맞게 작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 농장의 작업반을 약 50 명 정도, 공업 가공 부문 작업반을 약 15 명 정도로 조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생산을 지도하고 생산 조직을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많은 문제들을 타산하여야 하며 작업반장들은 현대적 기계 설비들에도 정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반에 망라되는 성원들이 적고 규모가 작아야 작업반장들이 생산에 참가하면서도 모든 사정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작업 조직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일'군들에게 정치 도덕적 자극과 함께 물질적 자극을 정확히 주는 면에서도 작업반의 규모가 작아야 효과적일 것이다.

작업반의 성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의 규모와 제반 생산 기술적 특성들을 잘 타산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 작업반에서는 기본 직종 로동자들의 능력에 기준하여 기타 직종 로동자들과의 정확한 비례 등을 타산하여야 한다.

3

협업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작업반을 잘 조직한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작업반 사업에 대한 지도와 그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업반 조직이 잘 되여 있고 그것이 대중을 경제 관리에 인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위로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들이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경제 관리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들을 실제적으로 경제 관리에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작업반이 자기의 역할을 놀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대중을 조직해야 하며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작업반에 대한 지도와 그 운영에서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작업반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성원들을 반드시 고착시키는 문제이다.

그들을 부단히 류동시킨다든가 혹은 여러 작업에 빈번히 분산시킨다면 그들이 안착되여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없을 뿐더러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도 없으며 사상 사업의 거점으로서의 작업반의 역할도 높일 수 없게 된다.

지도 일'군들은 작업반을 일단 조직한 다음에는 작업반 성원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에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목적 지향성 있게 그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반 관리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또한 사회적 분공을 잘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 관리가 생산자들에게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며 그들의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공간의 하나로 된다.

작업반 성원들에게 주는 사회적 분공은 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여야 하며 그 실행 정형에 대한 총화에 편리하도록 되여야 한다. 여러 공장들의 경험은 작업반 사업의 여러 측면 중에서 로동자들에게는 당 조직과 직맹, 민청 등에서 통일적으로 한 가지만을 분공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부담으로 되지 않게 하면서 한 가지 사업에 속히 정통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분공 조직을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든가 그것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그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지도하는 데 불편할 것이다. 룡성 기계 공장의 경험에 의하면 분공이 대개 6 개

체계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룡성 기계 공장 1 조립 직장에서는 《여섯 가지 분공 체계》에 의하여 매주 월요일에는 로동 행정, 화요일에는 절약과 내부 채산제 등 요일별로 총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맡은 바 분공 실행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직장에서는 기업 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되였다.

분공이 조직된 다음에는 그 실행을 도와 주기 위한 공장으로부터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공장의 해당 전문 관리 부서들과 직맹 단체들의 역할을 특히 높여야 한다.

작업반 사업에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이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데 대하여 물질적 자극을 잘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에 있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와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반 점수제에서 비생산적인 사회적 분공 수행에 필요 이상 많은 점수를 할당하거나 그에 대한 자극에 치중하면서 개인 도급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계획 초과분에 따르는 임금을 점수로써 평가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써나 또는 내부 채산제 상금에서 일정하게 평가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써 할 수 있다.

작업반 운영에서 특히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작업반장은 직접 로동에 참가하면서 작업반에 맡겨진 생산 계획과 로동 기준량을 초과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리용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할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적 분공을 조직함과 함께 직일 반장제, 내부 채산제 등 대중적 기업 관리의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을 잘 조직하고 대중을 작업반 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기업 관리 사업 개선에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때 대안 사업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남김 없이 발양될 것이며 생산 및 로력 조직에서 방대한 예비들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 하에서의 안주 탄광

장 동 윤

김 일성 동지는 1961년 12월, 우리 안주 탄광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하여 탄광 관리 운영에서와 석탄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주시였다.

그 후 지난 1 년 반 남짓한 기간에 우리 탄광 사업 전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관리 운영 사업과 생산 활동에 남아 있던 결함들이 퇴치되고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였다.

특히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우의 일'군들이 생산 단위와 막장에 내려 가서 생산을 직접 조직해 주고 도와 주는 대안 체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계획화 사업을 비롯한 관리 운영 사업의 모든 고리들이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개선되게 되였다.

탄광의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그 우월성이 생활에서 구현되게 됨에 따라 석탄 생산에서는 전환이 일어 났다.

금년 1.4 분기를 전년 동기와 대비한다면 일 석탄 생산량은 112.4%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113.2%로 제고되였다. 금년 상반년 석탄 생산 계획도 6월 19일 현재로 이미 지표별로 초과 수행되였다.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은 고도로 발양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탄광에서 일어 난 이 모든 성과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의 산물이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지침으로 탄광에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며 그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체득하게 되였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생산 지도 체계

탄광에서의 생산 활동은 지하 수천메터의 깊은 막장에서 분산되여 진행된다. 그것은 바로 수시로 정황이 변동되는 자연과의 일대 전투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의 전 행정은 갱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며 진행된다.

갱은 지상 공장, 기업소들의 직장과는 달리 생산 활동에서 한 개 공장과도 같은 독립성과 큰 사업 범위를 가지며 군대로 말한다면 련대와 같은 전투 단위이며 지휘 단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광에서의 관리 운영 체계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탄광에서는 지도 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며 갱을 중심으로 생산 조직 사업과 관리 운영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의 확립은 바로 이러한 탄광의 특성에 알맞게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는 열'쇠로 된다.

우리는 우선 탄광의 전투 단위인 갱을 튼튼히 꾸리며 갱을 중심으로 군대와 같은 규률과 질서를 가진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렸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고 갱 참모부를 튼튼히 꾸렸다. 갱 참모부에는 갱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고 탄광에서 유능한 일'군들로 설비 부기사장, 채탄 기사, 기계 기사 등을 비롯한 기술 진영을 꾸려 주었다.

이와 같이 갱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갱은 계획화 사업으로부터 생산 조직과 지도 및 기술적 지도에 이르는 생산의 전체 행정을 튼튼히 틀어 쥐고 유일한 지령 체계에 따라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 규모와 기술 장비,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등의 급격한 장성에 지도를 따라 세울 수 없었던 종전의 낡은 체계의 부족점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 갱에는 갱장을 비롯하여 구역장, 로동 지도원, 통계원 등 불과 몇 명의 관리 일'군들만이 있었고 기술자라면 오직 채탄 기사가 있었을 뿐이였다. 이런 조건에서는 갱의 지도 일'군들이 계획, 생산, 기술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할 수 없었고 잡다한 통계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과 전투 단위로 되여야 할 갱에서는 일정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할 수도 없었고 전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없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탄광 참모부의 유일적 지도 밑에 매개 갱 참모부들이 능동적으로 생산 행정을 지도하며 특히 부단히 변화되는 생산 조건에 맞게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질서 정연한 지령 체계의 확립은 새로운 기구 체계의 우월성을 실지 전투 행정에서까지 발휘시키며 탄광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새로운 기구 체계는 엄격한 규률에 의한 지령 체계가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우리는 탄광 참모부의 직속으로 중앙 지령대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작전 지휘처와 같은 임무를 수행케 하였으며 갱에는 갱 참모부에 갱 지령대를 설치하고 중앙 지령대와의 상시적인 련계 하에 전투를 직접 지휘케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 지령서를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직접 부문, 보조 부문이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령 체계의 확립은 생산 지도, 관리 사업으로부터 로동자들의 갱내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범화하고 질서 정연하게 제도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는 지도에서의 분산성과 산만성, 생산으로부터 계획화 사업의 유리, 생산과 기술의 인위적 분리 등과 같은 불합리성은 종국적으로 청산될 수 있게 되였으며 조그마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였다.

실지 전투가 진행되는 갱마다에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력량이 꾸려지고 지상으로부터 지하 막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 질서 정연하게 전개되니 결국 로력, 설비 등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탄전과의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에서 파동성도 근절되고 석탄 생산량은 계속 상승선을 걷게 되였다.

새 체계와 계획화 사업

우리 탄광에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선 문제의 하나는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였다. 면밀히 타산된 과학적인 계획을 가질 때에만 매개 부서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었으며 막장 지도에서의 통일성도 보장하고 생산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까지에는 전투 계획 작성은 전적으로 계획부 내 몇몇 실무 일'군들에게 일임되여 있었으며 그것마저 책상 우에서 수'자를 쪼개 주는 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계획이 생산 지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동원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는 바로 이러한 불합리성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새 체계가 생산 지도와 계획화 사업 간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인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체계의 우월성이 계획화 사업에서 실지로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정확한 계획 작성의 순차적 단계를 설정하며 명확한 전투 계획 방향을 세우며 탄전 및 설비 상태와 생산자 대중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계획을 대중과 토의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선 계획 작성의 순차적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탄광 참모부로부터 갱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계획 작성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매월 전투 계획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자.

탄광 참모부는 매달 2일까지에 다음달 계획 작성 방향을 결정하며 계획부는 4~5일 경까지에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매개 부서들에서는 이 초안에 기초하여 사업 중심 방향을 설정하고 군중 토의를 진행하며 계획부는 군중 토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계획 초안을 더욱 완성한다. 계획 초안은 탄광 참모회의에서 검토 확정한 다음 15일에는 탄광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한편 생산 지도부에서는 월 전투 계획 초안에 근거하여 매달 5일부터 종합 일정 계획 작성을 준비하면서 월 전투 계획이 비준되는 차제로 갱과 보장

부서들 간의 일정을 맞물리는 사업을 대중 토의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종합 일정 계획은 26일까지 탄광 참모 회의의 검토를 거쳐서 갱에 시달된다.

계획 작성 사업에서 이러한 유일적인 순차적 단계의 설정은 모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계획 작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며 광범한 군중을 계획 작성에 인입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작성에서 보다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전투 계획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아무리 계획 작성 사업이 순차성 있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투 계획은 우선 방향을 옳게 설정함으로써만 정확히 작성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 작성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탄광 참모부 특히 지배인과 기사장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 작성 방향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굴진을 선행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며 특히 매 시기 걸린 고리를 포착하고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례하면 8월 중 전투 계획의 중심 방향은 갱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로동 행정 사업 개선에 의한 1 인당 생산액 제고, 명년도 생산 준비를 위한 갱 건설을 전망성 있게 진행할 데 대한 문제, 당면하게는 새로 조업을 개시할 채탄장에 대한 기술 지도 사업의 강화 등 절실한 문제를 설정하였다.

경험은 새로운 체계 하에서 계획 작성 방향과 순차적인 단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며 실천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계획 작성 방향이 옳게 설정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획 작성에 광범한 군중을 인입하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현지 지도에서 탄광 지도 일'군들은 탄전을 잘 알고 설비를 잘 알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획은 채탄 기술자, 기계 기술자, 지질 기술자, 측량 기술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생산자 대중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초기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탄광은 공장과 사정이 다르다》느니, 《탄광에서는 앞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투 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향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계획 작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계획 작성을 생산자 대중의 사업으로, 모든 부서들의 중요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우리 탄광에서는 지금 탄광 참모 성원들이 주동이 되여 중대에 직접 내려가서 중대 단위로 전투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탄광 참모 성원들은 갱 참모 성원들과 함께 중대별로 탄전과 설비를 정확히 타산함과 동시에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건강 상태, 각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채탄 중대의 경우에는 채탄장의 길이, 지압 조건 등을 고려하며 동시에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기능 수준, 윈삽 바른 삽질 관계, 지어는 주택 거리 관계도 면밀히 타산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계획은 곧 생산을 정상화하며 그를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첫 출발점으로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업, 설비와의 사업, 탄전과의 사업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집행하면서 우리가 지난 기간 얻은 경험의 또 하나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와의 사업, 탄전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잘 하여 전체 대중의 열성을 고도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사업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 탄광의 경우에 로동 행정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종업원들 중에서 직접공의 비중을 계통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로력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였다.

과거 우리 탄광에서는 막장 내 로력 조직이 《선산 후산제》로 되여 있었다. 선산들은 이른바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 것만을 담당 수행하고 후산들은 작업에서 선산에 전적으로 의거하면서 가장 힘든 일만을 하였다. 그런데 로임은 순전히 기능 급수에 의해 지불되였기 때문에 후산들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지만 언제나 선산에 비해 적은 분배몫을 받고 선산은 응당 많은 로임을 받기 마련이였다.

우리는 이번에 로임 분배 형식을 일부 개편함과 동시에 로동 조직에서 낡은 《선산 후산제》를 없애고 소대 내에 새로운 로력 조직 형태인 초소제를 내왔다.

이것은 종래의 《선산 후산제》에서의 부족점들을 결정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초소제를 내온 결과 우리 탄광에서는 막장 작업에서 로동자들이 새로운 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산 열의도 가일층 앙양되게 되였으며 모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심 성의껏, 자기 능력껏 일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발동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과 함께 문제로 되는 것은 일체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설비를 효과 있게 리용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관리에서 책임 한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종전에는 설비 관리를 그 주관 부서인 공무 동력부가 공구 수리 직장과 갱 설비 지도원을 통해서만 하게 되여 있었고 생산 지도와 설비 관리가 서로 분리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사고가 발생되면 설비를 다루는 채탄공이나 운전공들의 경우에는 물론 수리공들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일수였다.

결국 설비 관리에 대한 주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상 주인이 없었다.

생산과 설비 관리가 분리되여 있었던 관계로 지난 기간에는 또한 갱장들과 중대장들 자신들도 설비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렸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그 상태를 료해 장악할 수 없었으며 그의 가동 정형을 총화할 수도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그를 다루는 단위의 책임자들, 례하면 중대의 경우에는 중대장이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운반 설비를 비롯한 일체 설비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설비의 중소 보수는 갱에서, 대보수는 공무 수리 직장에서 담당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생활은 이러한 체계의 확립이 설비 관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가일층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훌륭히 실증하여 주었다.

우리 탄광에서는 그 후 운반 계통 설비 사고가 근절되고 매 교대 7 시간 이상 가동이 정상화되였으며 설비 사고로 인한 작업 휴지 시간은 결정적으로 축감되였다.

새로운 설비 관리 운영 체계에서는 또한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자신이 설비 관리에 대하여 잘 알고 책임지게 됨으로써 생산 및 로동 조직 사업과 설비 관리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을 돌린 것은 또한 탄전과의 사업을 잘 하며 특히 굴진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였다.

굴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우리 탄광의 경우에는 굴진을 집중화하며 그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나섰다.

경험은 굴진을 집중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술 준비 사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기술부를 우수한 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고 막장에 접근하여 로동자들과 토의하면서 탄광의 광체 기하학적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탄상과 지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갱 건설 설계와 구역 단위로 되는 채굴 설계를 작성하고 《베》급 확보 탄량은 5 년 분 이상, 《아 1》급 확보 탄량을 6 개월 분 이상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작업 공정도와 기술 공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광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유리한 구역에 굴진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굴진에 대한 기술 준비를 갖춘 다음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재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기계를 창안 도입하는 한편 작업 조직에서 선진적인 동시 굴진, 동시 포장 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출수가 심한 우리 탄광에서는 적재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 굴진 속도를 높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오늘 우리 탄광의 굴진 속도는 전에 비하여 116%로 제고되였으며 우리는 7 개월 간 채탄할 수 있는 확보 탄량과 3 개의 예비 채탄장을 가지게 되였다.

경험은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대로만 사업을 조직하고 탄광을 관리 운영한다면 틀림없이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교시를 받들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

(필자는 안주 탄광 지배인임)

혁명과 개량

최 병 진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부르죠아 개량주의로 바꾸어 놓으면서 혁명으로부터 물러 서고 있다.

오늘 당원들과 일'군들이 혁명과 개량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본질을 폭로하며 그들과 투쟁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 수행에서 개량이 가지는 의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량은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투쟁을 전개한다. 그들 앞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처지의 개량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시간의 단축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을 통하여 압박자들로 하여금 개량과 같은 부분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양보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의 합법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조건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을 다만 부르죠아지의 양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부르죠아지는 로동 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탄압 조치만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투쟁에로 각성시키며 단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지는 근로자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하찮은 개량 따위를 그리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회유 정책으로써 자기들의 계급적 지위를 공고화할 것을 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죠아 독재 체계하에 있어서의 개량에 대하여, 그것이 근로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 부르죠아지가 양보한 측면과 더불어 그들의 회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간파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그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진짜 혁명가-공산주의자들과 가짜 혁명가-개량주의자들이 갈라진다.

개량 자체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였다고 간주하거나 그것만을 설교하는 자들은 부르죠아지의 회유 정책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자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개량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으로써 전취한 개량에 대하여 물론 그를 기뻐 맞이하

며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과 특히 그것이 혁명 력량의 준비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취된 합법적인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를 리용하여 대중속에서 제국주의와 그리고 지주, 자본가 제도의 착취적,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을 혁명 대오의 주위에 묶어 세우며 성과적으로 혁명 투쟁에 준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개량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모든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리해관계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다. 부르죠아지는 결코 자기의 근본적 리해관계를 침해 당하는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실 상 동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을 위한 투쟁에 머물 수 없으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에로 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투쟁에 있어서 혁명을 주되는 것으로 보고 개량을 그의 부산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가에게는 주되는 것은 혁명 사업이고 개량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는 개량은 혁명의 부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적 전술에 의하여 되는 개량은 자연히 그 정권을 와해시키는 무기, 혁명을 튼튼케 하는 무기, 혁명 운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변하는 것이다.》(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228 페지)

맑스주의자들은 오직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개량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개량을 위한 투쟁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혁명을 위한 투쟁에 종속시킨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며 따라서 동일시하거나 더우기 동격에 놓아서는 안 된다.

부르죠아 독재 체계 하에서, 그 정권을 그대로 두고 그 어떤 《구조적 개혁》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과 같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해 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바로 부르죠아 개량주의에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우리는 이러한 《리론》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개량주의의 본질

개량주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조 개혁론》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레닌은 《개량주의는 그것이 완전히 성실한 것일 때에조차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가 로동자를 타락시켜 무력하게 하는 도구로 전화된다.》(전집 제 19 권, 447 페지)고 지적하였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구조 개혁론》에 대한 테제가 《강령적 성격》을 띤다고 하면서 이것이 《현 정세 하에서의 로동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적 전략의 원칙》으로 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들이 내놓고 있는 《구조 개혁론》은 부르죠아 독재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헌법, 의회를 통한 합법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국가 내부의 세력 균형과 그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변경시키며 그리하여 로동 계급을 국가 관리에 인입하도록 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국유화》와 《계획화》 및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독점 자본을 《제한하여》 자본가들로 하여금 로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조 개혁론》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치열한 계급 투쟁이 없이,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독재의 수립이 없이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그것을 점차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방법의 도구로써 특히 부르죠아 의회를 들고 있다. 즉 그들은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얻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개조적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사회주의적 요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 의회는 부르죠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를 압박하는 도구이며 또 의회가 각 계급, 각 계층의 대표로 구성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르죠아 의회인 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도구인 것이다. 의회는 부르죠아지의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의석의 구성 문제는 본질적 역할을 놀지 못한다. 부르죠아 국가들에서 의회 선거 때마다 정당들의 의석수가 변하고 집권 당이 변하는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의 부르죠아 정치에는 하등의 근본적 변화도 일어 나지 않는다. 그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중에 대한 착취 방법, 약소 국가들에 대한 략탈 방법이 더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로 세련되는 것 뿐이다. 미국에서는 의회 선거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바뀌여지지만 그의 강도적 본성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수백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착취와 압박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세계 도처의 약소 국가 인민들이 미제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부르죠아 의회 내에서도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개혁안이 통과될 수 없으며 설사 통과되여도 부르죠아지가 그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 뿐이며 더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의회를 해산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인도의 케랄라주에 성립되였던 공산당 주 의회와 주 정부의 해산 사건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르죠아 독재 체계 하에서 의회는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구성 부분으로서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며 또 그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의회가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전부가 아니며 그의 주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르죠아지는 온갖 권력 기관—경찰, 헌병, 군대, 감옥, 행정 처리 기관 등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부르죠아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단들이며 바로 이것들이 실제적인 권력 기구들이며, 력량인 것이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의회는 허수아비인 것이다.

우리는 일부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의 대표가 부르죠아 의회에 참가하여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지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이 《단합된 힘》을 시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나기도 전에 탄압을 당하고 마는 것도 보아 왔다.

현실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자본가들의 앞에서 착취의 《철폐》, 독점 자본의 점차적인 《제한》 또는 《개변》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이 때 부르죠아지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송장처럼 묵묵하고 있을 것 같은가?

오늘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의회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을 다수표의 쟁취에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로동 계급은 그저 선거전만 잘 하면 되고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으며, 당도 로동 계급의 투쟁을 특별히 조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선거 직전에 자본가들처럼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사업만 하면 된다.

이것은 결국 그 어떤 투쟁을 하는 척하면서 로동 계급을 우롱하며 그들을 영원히 부르죠아지의 임금 노예로 남겨 두자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이 주장하던 바와 같이 운동이 전부이고 종국적인 목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결론 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구조의 개혁에 의하여 사회주의에로 자연 생장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함으로써 계급 투쟁과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외곡하며 당과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키자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립장과 주장으로써 자신들이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끼여 든,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라는 것을 폭로할 따름이다.

진정으로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가짜 혁명가들의 선전에 넘어 가지 말아야 하며, 대중이 그에 기만되지 않도록 혁명적 사상으로써 부단히 교양하고 혁명 투쟁에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혁명 수행에서 평화적 방도와 개량

구조적 개혁으로써 혁명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례외 없이 평화적 방도로만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민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인도주의자 연 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평화적》 혁명의 방도를 요란스럽게 떠들어 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어떤 공산주의자도 혁명의 평화적 방도를 반대한 일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며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혁명이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또 아무런 희생도 없이 승리한 례를 아직 모르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정당들은 물론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립각하여 혁명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 가능한 한 희생을 덜 당하면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희생의 구실 하에 착취자 계급이 성나서 충질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착취자 계급이 성을 내지 않는 정도에서 구조를 개조하여 《혁명》을 하자는 립장에 선다면 이것은 인민들을 부르죠아 독재 정권 하에 영원히 얽매여 두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부르죠아지는 그 구조 개혁이 자기들의 리해 관계에 저촉될 때에는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 구조 개혁이 자기들의 발'등을 뜨겁게 할 때에는 성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보총이건 로케트건 마구 쏘아 댈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평화적 방도를 개량과 얼버무려 놓지 않는다.

혁명의 평화적 방도란 문'자 그대로 혁명에 대한 평화적인 방도인 것이지 개량주의에로의 전락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변혁이 아무리 희생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혁명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부르죠아 정권은 전복되여야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새로운 정권—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여야 하며, 그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현 정세 하에서 혁명의 평화적 방도만을 주장하는 것은 개량주의에로의 전락을 면치 못 한다. 그것은 우선 1957년 모쓰크바 선언과 1960년 모쓰크바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있고 또 력사적 경험이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지배 계급은 자진하여 정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현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떤 부르죠아 정권도 군사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그와 직접, 간접으로 련결되여 있지 않는 정권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혁명의 평화적 방도만을 떠든다는 것은 결국 혁명을 그만 두자는 것이며, 그래도 《혁명》을 한다고 떠든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르죠아지의 리해 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개량이나 좀 해 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무장한 반혁명은 무장한 혁명 력량에 의해서만 타승 극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혁명을 원할진대 그들은 반드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혁명의 평화적 방도에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혁명의 비평화적 방도에 대하여 특히 충분한 준비가 되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 부르죠아지의 아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으며 또는 부르죠아 반동 집단이 혁명 력량에 대하여 진공을 감행하는 때에 있어서도 그에 강유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고 오히려 반공격으로써 그를 타승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평화적인 개조에 대해서만 떠든다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대중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게 될 것이며 사상적으로 그들을 무장 해제하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피동적인 무준비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혁명을 완전히 망쳐 버릴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량주의와 절대적 평화적 방도의 광신자들을 혁명의 변절자들의 대렬에 제쳐 놓는 것이며 그들과 끝까지 투쟁함으로써만 진정으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종교

림 훈

과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지도되며 건설되는 사회주의는 종교 미신과는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단한 무신론의 선전으로써 사람들을 종교 미신에 의한 정신적 압박과 기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종교는 허위적인 만민 평등과 박애, 평화, 자선을 들고 나옴으로써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착취 계급의 착취적 본질을 은폐해 주는 반동적 역할을 놀아 왔으며 놀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반동 집단은 자국의 근로자들을 착취 압박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이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며 국제 로동 운동을 파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종교를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합법화함에 있어서, 또한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비방 파괴 암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종교의 리용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종교의 본질을 밝히며 그와의 부단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어루만지거나 감싸 주는 데로 나간다면 그의 성행에 의하여 나마가 자유주의화되고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이 시련에 부닥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보나 국제 혁명의 견지에서 보나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는 자연과의 투쟁에서, 계급 투쟁에서 근로 대중의 무력으로부터 오는 불가피적 산물이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렬된 이후에 있어서는 종교의 근원이 주로 계급적인 것에 귀착된다. 계급 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착취와 압박은 자연력보다 더 큰 재난을 사람들에게 가져 왔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였고 공포와 비애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초현실적인 그 어떤 《존재》에 대한 환상적인 표상, 보다 좋은 래세의 생활에

대한 신앙을 낳았다.

이러한 신앙의 체계화된 사상—이것이 곧 종교이다.

레닌은 종교의 본질과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로동과 빈궁 및 고독에 짓눌린 인민 대중을 도처에서 억제하고 있는 정신적 압박의 한 형태이다.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의 피착취 계급들의 무력은 자연과의 투쟁에서의 야만인의 무력이 신, 악마, 기적 등등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피적으로 보다 나은 저승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한다.—레닌은 이러한 종교 신앙이 노는 두 방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일생을 로동하면서 빈궁하게 지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종교는 저승에서의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지상 생활에서의 온순과 인내를 가르친다. 그 반면에 타인의 로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종교는 그들의 일체 착취자적 존재를 정당화하는 극히 값싼 설교를 제공함과 아울러, 천상 안녕에로의 값싼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지상 생활에서의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전집 제 10 권 1 분책, 110~111 페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근로 대중에 대해서는 정신적 아편으로 되며 착취자들에게는 값싼 착취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오늘 종교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식민지 략탈, 침략 전쟁을 위한 중요한 지주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략탈의 척후대로서 항상 성경책을 들고 정의와 박애와 자선을 외우는 승려들을 파견하였다.

후진 국가들, 약소 국가들에 대한 침략에서 종교를 가장 널리, 가장 교활하게 리용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의 조선 침략사도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침투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것은 주지되여 있다.

과거에 조선에 기여 들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일제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해 주며 미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함에 있어서 종교적 설교와 암해, 간첩 활동으로써 갖은 기만적이고 음흉한 책동을 다하였다.

오늘도 종교는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계속 착취와 압박, 헤아릴 수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고통을 무마하며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북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건설 모습을 정당하게 볼 수 없도록 하는 마취제로,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는 세계 도처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길잡이와 합법화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민들 속에서 격언화된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심장한 력사적 결론이기도 하다.

《백인들이 처음에 올 때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며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 갈 때 우리들 손에는 성경책만 남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이 들어 가게 되였다.》

근로자들에게 착취에 대한 순종, 압박에 대한 무저항을 설교하는 것으로써 계급적 원쑤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 략탈, 침략의 길을 열어 주며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합법화해 주는 것—여기

에 바로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의 본질이 있으며 착취 계급 국가들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다.

력사 상 인민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모든 선진적 인사들이 국가로부터의 종교의 분리를 요구하여 나섰던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종교의 기만국으로부터 인민 대중의 눈과 귀를 뜨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착취 계급 국가가 종교를 인민 대중에 대한 착취적 목적에 조직적으로, 강압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종교의 분리 문제는 계급 사회의 조건 하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없었다. 형식 상 국교를 선포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종교가 지배 계급의 지배 도구로 리용되는 것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종교의 사회적 근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의 근원을 무지, 기만에서만 찾으려는 부르죠아 속물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로 대중의 사회적으로 억압된 상태, 자본주의(이것은 보통의 로동자들로 하여금 전쟁, 지진 등등과 같은 온갖 비상 사건들보다도 그야말로 천 배나 더 무서운 신고, 더 심한 고통을 날마다, 시간마다 맛보게 한다)의 맹목적인 힘에 대한 그들의 외견 상의 완전한 무력—바로 여기에 오늘의 종교의 가장 깊은 근원이 있다.》(전집 제 15 권, 496 페지)

종교와 각종 종교 단체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신성화하고 《영원한》 제도라고 미화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은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의 포기를 설교하고 있으며 주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타이르고 있다.

종교는 특히 현 시기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의 도구로서,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 방패로서, 기만적인 평화 구호의 가장대로서 더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교회는 독점 자본가들과 결탁한 반동과 반혁명의 소굴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도구 바티칸은 각종 흉물들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 암해하는 공작을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바티칸은, 《공산주의 리론은 그 원칙에서 허황하며 교리로서 허위적이며 그 실천적 적용에서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또 거듭 말해 주어 그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떠벌린다.

로마 법왕은 지난 4월의 《지상의 평화》란 소위 《교시문》에서 《전쟁의 무서운 파괴》니, 《슬픔》이니 하면서 미제의 침략 책동 앞에서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오늘 종교는 제국주의 반동의 충실한 주구로서 근로자들을 그들의 해방 투쟁으로부터 떼내려고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더욱 부식하고 종교 단체들과 그 시설들을 더욱 확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종교적 신앙을 배양하는 물질적 근원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비로소 청산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근거한 사회 관계의 청산과 더불어 종교를 산생하는 제반 조건들도 소멸

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신앙이 사사(私事)로운 일로 선포되였고 그의 자유가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종교 신앙의 《자유로운》 조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계급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종교를 대중의 우매화에 조직적으로 리용하던 반동적 정책을 청산하기 위해서이며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활동에 의하여 종교를 물질-정신적 근저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종교를 그 어떤 국가적인 강압적 조치로서 《극복》해 보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있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실로 종교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립장으로 된다.

어떻게 수백만 근로자들이 《아멘》을 부르며 석고명이나 나무쪼각, 빈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사사로운 일이요!》하고 외면할 수 있겠는가? 군인들이란 사람들까지 하늘을 우러러 눈이 멀개 있다면 그에게 따발총을 주든지 로케트를 주든지 무슨 맥을 추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마치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유익하며 돕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과연 종교가 나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종교는 나쁜 행동을 못 하도록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핵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남의 나라와 재산을 략탈하지 말라, 만민은 동포이며 형제이니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다. 그들은 종교가 핵 전쟁을 범죄타고 선포하며 만민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은즉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새로운 발전을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원 건설까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과업에 들어 가는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반동의 본거인 바티칸의 두목들을 《평화의 사도》로 추켜 세우는가 하면 법왕이 죽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인류 멸망설과 전쟁 공포증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티칸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상 종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핵 전쟁의 참혹성, 인류의 파산과 멸망에 대한 선전, 불가사이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의 핵 무기에 대한 신비화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핵 공갈의 압력에 짓눌려 전전긍긍하는 나머지 비애와 탄식에 울부짖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비애와 탄식은 항상 종교를 길러 내는 정신적 온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맑스는 《종교는 압박 받는 자의 탄식》이라고 하였으며 레닌은 《공포가 신을 만들어 내였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비단 자연력, 계급 억압 앞에서의 탄식이나 공포만을 념두에 두고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세계 반동들은 일방으로는 저들의 침략 전쟁

정책 강화를 위하여, 타방으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을 반대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그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 아직도 남아 있거나 혹은 조장 확대되고 있는 종교와 그 조직들을 리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정세 발전의 객관적 추세는 반종교 투쟁을 완강히 그리고 단호히 전개하며 전투적인 무신론의 기'발을 높이 추켜 드는 것이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의 항시적이고도 긴절한 과업의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결코 종교 미신이 횡행하고 사람들을 우롱하며 몽매화하는 현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레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에 대해서는 종교는 사사가 아니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의식적이며 선진적인 투사들의 동맹체이다. 이러한 동맹체는 종교적 신앙에서 표현되는 무의식성, 암매성 또는 몽매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또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사상적이고 오직 사상적인 무기, 즉 우리의 출판물, 우리의 말로써 종교적 운무(雲霧)와 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동맹체 즉…당을 창건한 것은 특히, 바로 로동자에 대한 온갖 종교적 우롱을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상 투쟁은 사사이기는 커녕 전 당적, 전 프로레타리아적 사업인 것이다.》(전집 제 10 권 1 분책, 114~115 페지)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강령이 전적으로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 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사상 교양 사업이 필연코 종교의 해독성,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사업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집권한 나라들에서 무신론의 선전, 종교와의 적극적인 사상 투쟁으로써 대중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도록 교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신앙의 자유는 결코 종교의 탈을 쓴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온갖 반동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해독을 주는 반공산주의 선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종교의 탈을 쓴 반혁명 분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한 독재가 실시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종교가 무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하다는 설은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그들 부단히 혁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선진 과학 기술 지식과 기술을 성과적으로 소유하며 리용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새로운 형의 인간—공산주의적 인간,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과 이러한 인간 관계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거나 산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적 과학적 의식의 대량적 산출을 위해서는 물질적 혁명만이 아니라 사상 혁명이 필요하며. 사상 혁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이미 승리한 나라들에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포함한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보수적이고 부패한 것을 쓸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령역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온갖 형태의 종교적 관념과 편견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낡은 사상 독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종교적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따라서 교인들의 감정에 그 어떤 모욕이라도 줄가봐 조심조심 《투쟁한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조심성 있는 소극적인 무신론 선전을 《체계적이고 능숙한》 투쟁 방법으로 묘사하면서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종교적 편견을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중 여하를 불문하고 온갖 종교적 표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무관심과 경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시이며 부르죠아 사상 침습의 허용을 의미한다. 오늘에 있어서 신비성의 관념과의 타협, 그와의 투쟁의 홀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반동에 대한, 낡은 것에 대한 합리화이며 방조이며 낡은 것 앞에서의 투항이다.

여기에서도 레닌적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즉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냐? 문제는 이렇게 선다. 거기에는 중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경시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온갖 일탈은 동시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의미한다.

우리 당은 모든 낡은 사상 잔재와 함께 종교적 편견들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전 인민적인 운동은 우리 당이 온갖 낡은 것, 온갖 형태의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한 것을 쓸어 버리고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 운동으로》 되였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운동의 주요 특성은 그것이 물질적 생산력의 강력한 앙양을 위한 위대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광범한 근로자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공산주의 의식을 대량적으로 산출하는 훌륭한 운동이라는 데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공산주의 의식의 대량적 산출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대중적 변화가 필요하며 또 이 변화는 오직 혁명적 실천적 운동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맑스의 명제는 우리 당의 천리마 총 로선에서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온갖 낡은 관점, 종교적 편견으로부터의 인민 대중의 해방, 공산주의 의식으로의 인간 개조 사업에서 현실에 대한 옳은 설명과 해석, 과학적인 무신론적 선전 사업이 큰 의의를 가지며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제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낡은 의식, 종교적 관념으로부터의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종국적인 해방,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대량적 배출을 위해서는 한갖 출판물, 과학적 무신론적 말이나 설복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제고의 방도만으로써는 부족하다.

인간 개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것은 혁명적 실천이다. 인간이 형성되며 개조되는 기초에는 항상 로동과 혁명 실천이 놓여 있다. 오직 로동과 실천 과정에서만 새 형의 인간들이 배출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경제 관계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 새 사회를 위한 혁명 투쟁을 념두에 두는바 문제는 이러한 로동과 혁명 실천에 교양을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교양과 모든 무신론적 선전, 물질적 자극 등을 대중의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훌륭한 결실을 보고 있으며 위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케네디와 《평화 전략》

고 현 송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평화》의 외피를 쓰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엄폐하며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대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기만극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세계 평화》에 대한 케네디의 연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케네디는 《미국인들을 위한 평화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평화, 우리 세대를 위한 평화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미국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굉장히 불어댔다. 그러나 케네디가 말하는 《미국의 평화》가 《무덤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케네디의 《평화》에 대한 장광설은 그의 《평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제의 《평화 전략》은 그의 《기본 전략》의 일환으로서 열핵 무기를 위주로 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시켜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케네디가 꾸미고 있는 《평화》의 기만극에 발을 맞추어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인민들의 경각성과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케네디의 기만극에 넘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더러운 역을 담당할 수 있다.

현 시기 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전략》의 음흉한 기도를 철저히 폭로하는 것은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의 교활한 량면 수법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며 미제에 대한 경각성을 제고케 함으로써 혁명 투쟁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기본 전략》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로서 그의 전쟁 전략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케네디는 벌써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 앉을 당시에 자기의 정책이 《한 손에는 화살을, 다른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이라는 량면 전술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란 핵 전쟁 준비를 비롯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케네디의 이러한 량면전술은 대전후 세계 력량 관계의 변동과 변천된 정세에서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부단한 강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반적 붕괴 과정은 제국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가일층 심각화시켰으며 세계의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국주의에는 불리하게 전변시켰다.

다른 한편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지향이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진출이 급격히 강화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 하나에만 의거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에 불리하며 그들이 더욱더 고립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며 세계 인민들의 증오를 모면하며 인민 대중들의 혁명적 경각성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더욱 음흉한 정치적 기만 술책에 매여 달리게 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라는 구호를 들지 않고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하기가 곤난하게 되였으며 침략적 야욕을 실현할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침략 계층들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평화의 수호자》로,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옹호자》로 가장하면서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으며 그들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케네디 정책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를 세계 력량 관계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 성격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열핵 무기의 발전이 인류의 운명에 대한 미제의 《책임감》을 증대시켰으며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세계 평화를 강력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케네디는 바로 이러한 자들로부터 고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인류의 《정의롭고도 항구적인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전쟁의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케네디의 이 말은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고무를 주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면 오늘 케네디가 소란스러운 《평화》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엄폐하며 세계 인민을 기만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전후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각종 침략 전쟁을 발광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비 확장과 새로운 핵 전쟁 준비를 로골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미제의 침략 정체는 여지 없이 드러났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

오늘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신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들의 철천지 원쑤라는 것이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쟁취를 방해하는 것이 미 제국주의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미제를 몰아 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급격한 발전은 세계에서 미제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고 그 세력 범위를 축소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력사 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저지시키고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망상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의 기만적 정체는 최근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조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핵 시험 금지를 원하며 《진정한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배려나 하는듯이 떠듦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성의》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가 이루어지며 핵 전쟁의 위협이 감소되는듯한 환상을 류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핵 시험 금지에 관한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새로운 책동에 불과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조약을 통하여 자기들의 핵 무기의 확장과 핵 공갈 정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며 이 조약을 저들의 《평화 전략》 추진의 좋은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케네디는 《평화》의 간판 밑에서 세계 긴장 상태의 원인과 그 후과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전가시키려는 음흉한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세계 정세가 긴장되는 주되는 원인은 자기들의 정치 및 경제 제도를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깜빠니야》에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저들의 침략 정책을 합법화하며 다른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과 그 위신을 훼손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침투》, 《공산주의 침략》 등의 허위적인 구실을 날조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을 감행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인민 중국을 《봉쇄》하고 인민 중국의 국제적 위신과 거대한 영향력을 막으려는 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허위적 구호에 의거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이 추구하는 목적의 다른 하나는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끌어 당기고 그를 부추겨 줌으로써 그들을 미제국주의의 립장에 더욱 접근시키며 무원칙한 타협과 양보, 나아가서는 투항의 길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전쟁 공포증에 사로잡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미제와 타협하려 하며 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리익을 팔아 먹으려는 것을 교묘하게 리용하고 있다.

케네디는 현대 수정주의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평화적 진화》를 거쳐 자본주의를 복구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공산 뿔럭 내에서의 새 변화가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음흉한 기도를 드러내 놓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평화 전략》을 통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 침투하여 그 나라들을 미제에 예속시키는 것을 자기들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각종 정치적 기만 수단에 의거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 및 평화의 《수호자》로 가장하고 있으며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그들은 이 광대한 《중간 지대》를 장악함에 있어서 무력적 방법에 의거하는 한편 《싸우지 않고》 예속시키기 위한 각종 수단을 《고안》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수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략적 정체는 갈수록 철저히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이 침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케네디의 《평화》가 허위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케네디는 《미국의 평화》에 대한 조건으로서 미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도를 개변하며 《절망적이며 외곡된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지》 말며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말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말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적극 받아 들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케네디가 1 년 전에 내놓은 소위 《20 년 평화》 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망상이다.

다시 말하면 케네디는 《평화》의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미제에 대한 태도를 개변하여 미제를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 규탄하지 말며, 미제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감행하는 침략 행동을 묵인하며 지어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에로 복귀할 것을 로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케네디의 《평화》에 대한 파렴치한 요구 조건이다.

이처럼 케네디 정부의 《평화 전략》이란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여 자기들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엄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그가 걸어 온 전 행정과 세계의 현실은 케네디야말로 세계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세계 평화의 교살자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케네디는 집권한 이튿날부터 《전면 전쟁이나 보통 전쟁, 대전쟁이나 소규모 전쟁 등 할 것 없이 모든 전쟁에 대처할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떠벌리면서 저들의 침략적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는 집권한 2 년 반 동안에 자기의 선임자들보다 더욱 음흉하고 교활한 정책에 매여 달리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열핵 무기를 비롯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금년에 케네디는 아이젠하워 집권의 마지막 한 해에 비하여 무려 100억 딸라나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1963~1964 회계 년도 미국의 군사비는 직접 군사비만도 560억 딸라나 되며 그에 간접 군사비까지 합치면 998억 딸라로서 실로 미국 총 예산의 80% 이상을 이루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비 예산에 기초하여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위한 핵 무기의 제작에 서두르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위한 상용 무기의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나토, 세아토, 쎈토 등 각종 군사 뿔럭들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에 100만 명 이상의 미제 침략군과 핵 무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이 《유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며 세계 인민을 공갈하며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 함대들이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를 마음 대로 싸다니면서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폴라리스로 장비한 미 원자 잠수함들을 아세아 지역에까지 배치함으로써 아세아 인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 지역의 평화 애호 국가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는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삼고 있으며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 뿔럭을 조작하기에 발광하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소란스러운 《반중국》 깜빠니야를 조작하는 한편 인도 반동 계층들을 더욱 끌어 당겨 아세아 침략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전쟁 준비에 발광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라오스에서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함으로써 사실 상 이 지역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연막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며 또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케네디의 《평화 전략》이란 그의 전쟁 전략의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형태이다. 미제가 어떠한 간판을 들고 나오든지 그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전략》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만적이고 교활한 《평화 전략》에 대하여 환상을 류포시키며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들의 침략적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며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며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우리는 케네디 정부의 교활한 침략 전쟁의 량면 전술에 기만 당하지 말아야 하며 경각성을 높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침략 정책의 추악한 정체를 세계 인민들 앞에 철저히 폭로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평화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 오직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하며 그들이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만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전략》의 기만성을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극동과 세계 평화의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인민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고 그들의 온갖 도발 행동을 폭로 분쇄하며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구린 데 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불어 반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과 항구한 평화를 쟁취할 것이며 극동과 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사 《정권》이 해 놓은 일이란 무엇인가

정 신 용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군정》이니 《민정》이니 하면서 떠들어 대던 끝에 얼마 전에는 금년 말까지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앞두고 군사 《정권》 2년간에 실시한 정책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 있다》느니,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느니 하면서 마치 그 어떤 큰 《업적》이라도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도 군사 《정권》이야말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정부》라고 부추겨 올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분식이 필요하게 되였는가?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자기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 정희와 같은 군사 파쑈 도당이 필요하였고 박 정희 파쑈 정권을 계속 유지하자면 군사 《정권》의 《업적》을 분식하지 않으면 안 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군사 정변》이 조작된 때로부터 2년이란 시일이 지나는 동안에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해 놓은 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1

군사 《정권》이 해 놓은 일이란, 력사에 류례 드문 파쑈적 군사 테로 통치 체계를 확립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학살을 감행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사 《정권》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가 전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막다른 골목에서 하루'밤 사이에 최후 발악적 수단으로 조작해 낸 폭압 통치 기구이다.

그런것 만큼 군사 《정권》은 《정권》을 찬탈한 첫날부터 파쑈적인 군사 테로 통치 체계를 수립하고 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 구악을 일소》한다는 미명 하에 일체의 상층 기성 관리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자기들의 심복자들인 괴뢰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로써 상층 관료들을 꾸려 놓았으며 지어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추종 분자들로써 배치하였다.

군사 《정권》은 비밀 경찰 기구이며 파쑈 모략 통치의 핵심인 《중앙 정보부》를 설치하고 미국 중앙 정보국의 지휘 하에 수사, 정보 등 일체 폭압 기관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만들었으며 20여만의 밀정을 박아 넣고 살인적인 특무 통치를 실시하였다.

사법 체계도 《단심제》의 《군법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재판 체제를 수립하고 《혁명 재판소》는 인민 대중을 탄압하는 파쑈적 징벌 기관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 같이 무수한 《법령》들을 조작 공포하였으며 수다한 정당,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온갖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파쑈적인 폭압 체제를 강화한 군사 《정권》은 우선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으며 애국적 민주 인사들에게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반공》의 구호 하에 민주 인

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압살하며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반미 구국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 밑에서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남조선에서 구속 령장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만 하여도 7만 2,812 건에 달하였으며 수 많은 애국적 민주 인사들이 무참하게 처형 학살 당하였다.

군사 《정권》의 파쑈적 테로 통치는 남북 협상과 조국의 자주 통일을 주장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여 온 애국적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데서도 나타났다.

군사 《정권》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교내 조직을 해체시켰으며 학원 내에 정치 시찰망을 뻗치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며 학생들의 사소한 진출에 대하여서도 탄압하였다. 그들이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정변》 초기에 《교원 로조》의 핵심 성원 500 여 명이 체포 투옥되였다.

군사 《정권》은 파쑈적 폭압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을 억압하며 그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시설 불충분》이라는 구실로 76 개의 일간 신문과 305 개의 통신사, 453 개의 주간지를 포함한 수다한 출판 보도 기관을 강제로 페쇄시켰으며 엄격한 보도 관제를 실시하였다.

사회 생활의 온갖 분야에서 군사적 질서가 강요되였으며 군사 파쑈 도당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면 인민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죄명으로 처벌을 당할지 모르는 참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정변》 후 작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에 《교통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리유만으로도 실로 28만 3,000 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검거되여 그 중 적지 않은 인민이 《재판》에 회부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30 초에 한 건씩 처리하는 데 해당한 《무데기 재판》이 서슴 없이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군사 《정권》의 파쑈적 군사 테로 통치는 남조선을 암흑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잡지까지도 《중세기의 암흑 정치도 무색할 만한 폭압과 테로의 도가니—이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2

군사 《정권》 2 년간에 남조선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민생고는 가일층 심화되였으며 경제의 예속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의 군사적 부산물로 전락된 남조선 경제는 《정변》 후 군사 《정권》의 일련의 반동적인 경제 시책에 의하여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였다.

군사 《정권》은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한강과 락동강 연안에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다는 구호 하에 《자립 경제 건설》을 표방하면서 《5 개년 경제 계획》(년 평균 7.1%의 생산 장성률을 예견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우선 군사 《정권》은 《5 개년 계획》을 실현할 하등의 밑천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립 경제》의 기초를 축성한다는 《5 개년 계획》의 자금을 주로 외자에 의거하고 있다. 총 투자액 25억 딸라 중 14억 딸라는 미국의 《원조》와 외국 차관으로써 충당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군사 《정권》의 계획과 예산은 전적으로 외국 《원조》와 차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였다. 이것은 벌써 그 자체가 《5 개년 계획》의 실패를 결정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경제 발전의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세에 의존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례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리 승만 통치와 장면 통치가 그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실 상 지금까지 외자 도입이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군사 《정권》은 하늘 같이 믿고 있던 외자 도입이 이렇게 되자 내부 자금에서 부족되는 것을 념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여의롭게 될 수 없었다.

내부 자금이란 하나는 인민들에 대한 강제 수탈이요, 다른 하나는 예속 자본가들의 투자이다. 그러나 《5 개년 계획》의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로임 동결, 물가 통제, 생산 통제 등 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는 인민들의 구매력을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한편 자본의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였다. 이리하여 내부 자금의 동원도 완전한 실패로 돌아 갔다.

이런 데로부터 군사 《정권》은 소요되는 자금을 강제로 략탈하기 위한 《통화 개혁》마저 서슴 없이 감행하였으나(이로서 116억 원의 민간 자금이 하루 아침 사이에 동결됨) 남조선 경제는 더욱 전면적인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이 가상적인 《5 개년 계획》의 강행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특히는 《통화 개혁》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순이 극도에 달하게 됨으로써 군사 《정권》의 《5 개년 계획》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5 개년 계획》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울산 지구 공업화 계획》은 1962년 내에 착공하기로 되였던 제철 공장, 비료 공장, 정유 공장과 금년 초에 착공하기로 예견된 화력 발전소 중에서 다만 정유 공장의 시공 작업이 착수되였을 뿐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 소 기업이 파탄된 사실이다.

군사 《정권》은 중 소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나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군사비 지출에 소모함으로써 그들이 방출한 중 소 기업 자금은 소요액의 10 분의 1도 못 된다. 이러한 데로부터 경영 자금의 70% 이상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 중 소 기업의 자금난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구매력의 축감과 외화 보유량의 급격한 감소와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영향으로 원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그의 판로난은 더욱 우심해졌다. 이리하여 작년에만도 3,000 개, 금년 첫 2 개월간에 또다시 300 여 개가 파산되였다.

남조선 농촌 경리의 파탄도 우심하다.

군사 《정권》은 《농촌 진흥에 의한 공업화》라고 하는 《중농 정책》을 내걸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되였는가?

군사 《정권》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하겠다고 떠들어 왔으나 그들이 고리채로서 정리하기로 확정한 금액은 고리채 총액의 겨우 22%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고리채 정리》와 관련하여 빈농민들은 돈을 빌려 쓸 길조차 막히게 되여 더욱 곤궁에 빠지게 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중농 정책》으로 생활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 대한 《농지세》, 간접세 부과의 증대와 2 배에 달하는 비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가혹한 수탈과 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경지 면적은 축감되고 중첩되는 재해로 인하여 농업 생산력은 년년이 저하되여 식량 위기가 남조선 인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금년도 남조선의 식량 부족량은 1,500만 석으로 추산되며 6월 말 현재 절량민 수는 1,200만 명(200만 세대)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쌀값은 가마니당 4,500 원으로서 전후 최고 가격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파탄은 남조선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민 소득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인구 1 인당 60 딸라에 지나지 않는데 실업자 수는 《정변》 후 50만이나 더 증가되여 600 여만을 헤아리고 있다.

생활고는 날마다 남조선 인민들을 위

협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자실자와 아사자가 거리와 농촌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군사 《정권》은 조성된 사태로부터의 출로를 계속 예속의 길에서 찾으면서 미국 《원조》의 증액을 애걸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원조》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난관으로 하여 대외 《원조액》을 삭감하며 《차관》에로 전환되고 있는 데 비추어 군사 《정권》의 재정적 난관을 완화시킬 하등의 희망도 없다.

이로부터 그들은 미제의 극동 전략에 추종하면서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짓고 일본 독점 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조일 량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것이 설사 《타결》된다 하더라도 《청구권》 지불은 1964년 이후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10 년에 나누어 줄 것이므로 당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구출하지는 못 할 것이 명백하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경제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사태는 이미 군사 《정권》의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써도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자의 결핍, 보유 외화의 축감, 물가의 급등 등 중첩되는 난관 앞에서 군사 《정권》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때는 몽둥이식으로 물가 통제를 강행하던 그들도 최근에는 그것에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 하고 물러 나앉고 말았다.

경제 정책 상에서의 무능력과 거듭되는 혼란은 정치적 위기와 더불어 군사 《정권》의 운명을 결정 짓고 있다.

3

《군정》 통치 하의 남조선에서는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가 범람되고 우리의 유구한 민족 문화와 미풍량속이 유린되고 각종 사회악이 더욱 우심해졌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며 붕괴에 직면한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체 진보적 사상을 억압하고 《반공》 사상을 인민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였다.

《반공》 선전의 중심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무한히 동경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북반부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고취시키며 자기들의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정책을 은폐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를 외곡 비속화하는 데 돌려졌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을 중상 비방하며 있지도 않는 《공산주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멸공》과 《승공》을 떠들었다. 지어 《경제 건설》도 《국방력 강화》와 《부패 구악의 일소》도 《승공》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을 더욱 노예화하며 자기들의 지배를 부지하려고 《숭미》 반동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청년 학생들을 우매화할 목적으로 《고등 유민의 범람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대학 정비안》을 조작하고 21 개의 대학을 일시에 페쇄함으로써 청년들의 배움의 길을 억제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사회 발전의 법칙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 교육》을 대폭 축소하고 《도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고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인민들 속에 주입시켰다.

그들은 《실존주의》를 비롯한 각종 반동적 부르죠아 철학을 류포시키면서 군사 파쑈 독재를 《선의의 독재》로 묘사하며 군사 《정권》만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말사스의 《인구론》을 찬미하면서 남조선의 극심한 민생고가 반동적인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구 과다》에 있으며 따라서 《산아 제한》과 《이민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생존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로자 협조》, 《자매 결연》 등의 구호를 들고 나왔으며 《내핍 생활》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부패 일소》라는 구호를 들었으나 퇴폐적이며 색정적인 양키 문화를 류포시키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부패와 타락, 무기력을 더욱 조성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미풍 량속이 더욱 유린되고 극단의 개인주의와 무지몽매, 패륜 패덕이 성행하게 되였으며 사기와 협잡,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 행위가 계속 증가되였다. 1962년에 각종 범죄 건수는 72만 3,900 건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정변》 이전 시기에 비하면 실로 2.2 배의 증가로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조선에는 《구악》이 무색할 정도로 뢰물, 독직, 횡령이 횡행하고 있으며 세칭 《4대 의옥 사건》은 그의 단적 실례이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군사 《정권》의 부패성을 폭로하면서 《구악이 나쁘다 하더니 세칭 4대 의옥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 준 신악은 구악의 뺨을 칠 정도》(《사상계》, 1963년 4 호)라고 쓰고 있다.

4

미제와 군사 《정권》은 자기들에게 겨누어진 불평 불만에 찬 남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하여 《공산주의 침략》을 떠벌리면서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긴장 상태를 가일층 격화시켰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병력 원천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군사 《정권》은 70 만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250 여 만에 달하는 제대 군인들을 예비군으로서 급속히 재조직하는 한편 《병역법》을 개악하고 병역 의무 년한을 18 세로부터 45 세까지(종래에는 18 세부터 40 세까지)로, 현역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2 년으로부터 3 년으로 각각 연장하였으며 전쟁 시기에 동원할 대상으로서 440만의 청장년들을 강제 등록하는 등 병력 원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다.

또한 괴뢰군의 무장 장비도 적극 증강하였는데 그들은 각종 포, 땅크, 자동차, 초음속 제트 전투기, 신형 함선 등을 불법 반입하여 괴뢰군 장비를 보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제는 대외 군사 《원조》를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1961∼1962 회계 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하여 3,000만 딸라나 더 많은 2억 8,144만 딸라를 남조선에 배당하였다.(극동 및 동남 아세아 지역에 배당하고 있는 군사 《원조》 총액 8억 3,897만 딸라의 33.5%에 해당)

군사 기지 건설이 대대적으로 촉진되였다.

인천, 군산 등을 비롯한 10 여 개의 항구들을 개건 확장하는 한편 전연과 후방을 련결하는 군사 도로들을 확장 신설하였으며 30 여 개의 작전용 비행장을 신형 제트 전투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군사 기지 확장에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1962 년도 태평양 지역 기지 건설비 중에서 37.5%에 달하는 1천 193만 2천 딸라를 남조선에 할당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케네디는 침략 전쟁의 예봉을 아세아 특히 남조선에 돌리고 계속 무력을 강화하면서 전쟁 심리를 고취하며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미제는 작년에 44 차에 걸쳐 호전 장군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전쟁 준비를 촉구하였으며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은 1962년에 그 전년에 비하여 17 차나 더 많은 51 차의 각종 대규모 전쟁 훈련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미제와 군사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감을 위압하려 하였다.

군사 《정권》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일제를 《돌격대》로 내세움으로써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 체계를 부축하려는 미제의 침략 책동에 발맞추어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에 날뛰고 있다.

미제와 군사 《정권》의 이러한 전쟁 준비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더 불안 속에 몰아 넣었으며 특히 남조선 괴뢰 군대 내에서 불안과 혼란을 증대시켰다.

미제의 전쟁 정책으로 인한 대다수 장병들의 처지의 악화, 훈련과 고역, 기압의 성행, 남조선 정세의 불안,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의 강화 등으로 괴뢰군 내에서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증대되였다.

이리하여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 불평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괴뢰 군대 내에서의 개별적 또는 집체적인 사병들의 도주 사건은 지난 1월 말 현재로 4개 사단의 병력에 해당하는 약 6만에 달하였다.

사병들의 불평불만은 파쑈적 군사 규률의 강요를 반대하는 데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기합》을 가하는 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달려 들어 뭇매를 가하는가 하면 사살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전방에서만도 《군사 정변》 후 《군 풍기 위반 사건》은 10여만 건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사병들 속에서는 군사 《정권》을 배격하는 기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이 급격히 격증되고 있다.

이러한 사병들의 동향은 괴뢰군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2년 동안에 해 놓은 일이란 천하에 명백하다.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 구악을 일소》하며 《자유,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던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오히려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인민 생활을 참을 수 없는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해 놓은 일이란 남조선 정계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다만 《박 정희 어깨 우의 별이 2개에서 4개로 된 것》뿐이다.

오늘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다. 미제와 군사 《정권》의 테로 통치는 이미 완전히 그 밑창이 드러났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그들에게로 돌아 가게 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증오와 배격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군사 《정권》은 종말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자주, 자립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주, 자립, 자생, 자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지주로 되고 있는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리는 데 있다.

남북 조선의 애국적인 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할 때 민족 자주 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자재 보유 기준에 대하여

오늘 당은 매개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에 서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설비,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과 더불어 자재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이라도 더 잘 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만일 기업소들에서 자재를 기준 이상으로 창고에 쌓아 두고, 자재 지출에서는 소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자재를 생산 외의 다른 목적에 리용한다면 그 공장의 경영 활동과 나아가서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다.

현 시기 자재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특히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재 보유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단위들에서 생산의 부단하고 정상적인 보장을 위하여 저장하게 되는 생산용 자재의 량적 기준을 말한다. 현행 실무에서는 이를 공장, 기업소들의 자재 상시 보유량이라고도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 국가적 규모에서나 공장, 기업소 단위에서나 할 것 없이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자면 항상 일정한 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상품 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는 불의의 사변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예비 및 조절 폰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과 건설 계획을 정확히 실현하며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재를 공급하는 기관에서나 자재를 소비하는 기업소에서 일정한 자재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우리들이 생산용 저장품이라 할 때에는 자재의 소비자 측 저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용 저장품을 어느만한 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물론 기업소마다 각각 자기의 특성이 있는 것 만큼 그 규모는 일정할 수 없다.

보유 기준은 매개 기업소마다 그리고 매개 자재마다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재의 보유 기준을 규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다른 하나는 공급 조건상 특성이다.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일평균 원자재 소비량, 원자재 소비의 특성, 기업소의 위치 기타 등이 속한다.

례하면 일 평균 원자재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품의 절대적 규모는 커져야 하며 생산에의 자재 출고 회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저장품의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

공급 조건 상 특성에 속하는 것은 공급자 기업소들이 1 회에 출하하는 물자의 량, 물자의 공급 기간, 수송 조건 등이다. 공급자 기업소들이 1 회에 출하하는 물자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량의 규모도 커지고 공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장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생산용 저장품에 대한 기준화의 기본원칙은 생산의 정상화에 필요한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있다.

저장품으로 있는 자재들은 새로운 물질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가하지 않고 림시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므로 그 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물론 보유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생산의 정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재의 필요 이상의 저장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소 경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

물자를 너무 많이 저장하는 것은 우선 류동 자금의 회전을 느리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재정 형편을 악화시키며, 물자의 사장을 초래케 함으로써 전 인민 경제 범위에서의 물자 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저애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요 이상 창고 면적을 확장시키고 그의 보관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키며 불필요한 수송을 낳게 함으로써 수송수단의 긴장성까지 초래시킨다.

따라서 오늘 당은 특히 자재를 필요 이상 기업소에 쌓아 두고 자기도 쓰지 않으면서 남도 쓰지 못 하게 하는 현상과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기업소들에는 동원할 수 있는 유휴 자재가 많다.

금년 초 평양시 내 일부 기업소들에서만 하여도 8,760 세대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량에 해당되는 자금과 물자들이 새로 동원 리용되였다.

따라서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추가적인 예비를 동원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 확립된 자재 공급 체계는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상시 보유량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를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서는 생산용 저장품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로부터 아래에 자재를 책임적으로 실어다 주는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의 확립은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자재 상사들이 산하 기업소의 물자 공급을 책임 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분상사 분 창고 혹은 각 기업소에 파견되여 있는 상사 성원들이 매달 기업소 전투 계획 토의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기

업소에 필요되는 물자의 규모를 옳게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소의 자재 소비 정형과 함께 유휴 사장 및 초과 보유 물자들을 정확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현실적으로 최저한의 상시 보유량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우월성은 지금 천리마 대안 전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 실행을 위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명확히 실증되고 있다.

현 시기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특히 1 개월 분 이상의 자재를 선행시키며 3 개월 분의 예비 부속품, 15 일 내지 1 개월 분의 협동 생산 제품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자재, 예비 부속품, 협동 생산 제품의 확보를 이러한 규모에서 선행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 수준에서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따라서 모든 부문 기업소들에서 당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보유 기준을 계획화하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재 공급 사업의 계획화는 물자의 정확한 소비 기준에 엄밀히 립각하여야 한다.

그것은 물자 소비 기준이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물자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출 기초로 되며 자재 공급 사업의 출발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물자 소비 기준은 자재 공급 사업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열 수단으로도 리용된다.

자재 소비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한다면 그것은 필연코 자재 보유 기준도 그 만큼 높게 설정되여 필요 이상의 자재를 저장하게 되며 계획 상 과대한 예비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인민 경제 다른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와 같이 자재 소비 기준과 보유 기준은 공장, 기업소들의 물자 소비량과 상시 보유량을 과학적으로 근거 짓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호상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거 낡은 경험이나 실적에 매여 달리는 그릇된 현상을 시정하고 생산 현장에 접근하여 군중들의 새로운 창발적인 지혜에 의거함으로써 보다 선진적인 물자 소비 기준과 자재 보유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각 성, 도 상사, 분 상사(분 창고)들의 기능을 더한층 높이며 설정된 보유 기준에 준하여 자재를 종류, 규격, 재질별로 정확히 실어다 주며 생산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자재 공급 일'군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자 공급과 소비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개의 못, 한 쪼각의 천

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소중히 다루고 극력 아껴 쓰며 국가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보유 기준에 대한 재정 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금융 기관들에서는 기업소 류동자금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설정된 자재 보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재를 류용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김 선 국

근로자 제 16 호 (루계 23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8월 20일 인 쇄 • 1963년 8월 17일

7—330523 값 40 전

서 적 안 내

경제 사상사 (상)

국판 400 페지

우리 나라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로서 경제 사상 분야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세계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우수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의 민족 문화 유산은 오래 동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경제 사상사(상)는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사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개괄하려고 시도한 첫 저서이다.

이 책에는 우리 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사상으로부터 봉건 제도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사상을 포괄하고 있는바 저자들은 방대한 사료를 력사적 유물론의 명제들에 의거하여 분석 정리하면서 해당 시기의 사회 경제 형편을 개괄하고 그와의 호상 관련 속에서 경제 사상의 발전을 고찰하는 데 주력하였다.

경제 사상사(상)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와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한다.